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 고린도전서 5:7의 번역과 해석 —

김영인*

1. 들어가는 말

고린도전서 5:7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유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개역개정』 고전 5:7a)라는 말 뒤에 다소 뜬금없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개역개정』 고전 5:7b)라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5:7a와 5:7b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 단절은 결국 이 둘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생략적으로 배태할 수밖에 없다. 우리말 성경의 경우 최근의 공인역인 『개역개정』뿐 아니라 『개역』, 『개역한글』, 『공동번역』이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인다. 비록 원문에서 벗어나 의역한 『현대인을 위한 성경』은 논외로 치더라도 『새번역』 역시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5:7)로 기존의 번역에 운문(潤文)을 가하고 있지만, 역시 고린도전서 5:7a에서 5:7b로의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사실 『새번역』의 운문도 고린도전서 5:7b에서 그 말뜻이 모호한 기존 번역의 ‘곧’을 생략한 후 ‘되셨느니라’를 ‘되었습니다’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운문은 오히려 원문 *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NTG²⁸)에서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γὰρ*를 완전히 배제한

* KiHo Wuppertal/Bethe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yikim@stu.ac.kr.

번역이어서 원문과 사뭇 거리가 있는 번역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이 운문은 원문의 γάρ가 그 앞의 και와 함께 번역되어 ‘또한, 역시 … 하기 때문이다’라는 번역을 유도하는 기능도 간과한 것이다.¹⁾

이 번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 και γάρ에 대한 외국의 번역을 비교하면 영어 번역에서²⁾ KJV가 “For even”으로, NAS가 “For also”로, 독일어 번역에서³⁾ LUT와 ELB가 각각 “Denn auch”로 번역하며, και γάρ를 번역에 반영하여 고린도전서 5:7a와 고린도전서 5:7b의 조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 프랑스어 성경은 LSG, NEG 등이 단지 γάρ만 그와 대응하는 “car”로 번역했다.

이 γάρ의 경우 우리말 성경 번역의 사례를 보면 『새번역』을 제외한 대다수 성경 번역은 και γάρ를 배제하여 원의(原意)에 못 미치는 번역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곧’을 첨가하여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는 동격만 부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 번역들이 원문에 있는 και γάρ를 인식하지 못한 듯한 번역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말 성경 번역사를 되짚어 보거나 그 번역의 저본(底本)을 추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번역사와 저본의 탐색을 거슬러 신빙성 있는 원문을 재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5:7a와 5:7b의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고린도전서 5:7a와 5:7b의 주제어인 ‘(목은) 누룩과 유월절 양’이라는 메타포는 이 의미 단절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5:7a와 5:7b에서 야기되는 번역의 어려움과 의미 단절의 원인이 어느 정도 바울에게 소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아무리 원문에 충실한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 저자의 오류와 착각으로 비문(非文)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원문의 가독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우리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본문을 생성한 저자를 논쟁의 장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오직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F. Blass, A.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452 참조. 또한 고린도전서 5:7a의 원인과 근거로 γάρ를 5:7b에 연결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VII/1 (Zürich: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379.

2) RSV와 NIV는 “for”로만 번역했다.

3) EIN은 “denn”으로만 번역했다.

2. 고린도전서 5:7의 본문

고린도전서 5:7a과 5:7b의 의미 단절이 야기된 원인을 찾으려면 먼저 본문의 역사와 번역의 대본이 된 저본과 번역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현재의 본문 번역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찾아내어 차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 우리가 추정한 본문의 역사와 그 뒤를 따르는 번역 역사의 각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조심스레 바울에게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럼 먼저 본문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자.

2.1. 본문비평

고린도전서 5:7의 본문 전승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것은 GNT⁵와 NTG²⁸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NTG²⁸은 두 가지 이독(異讀)을 제시한다. 먼저 $\aleph^{1vid} \kappa^2$ C L P ψ 048. 33. 81. 104. 365. 630. 1175. 1241. 1739. 1881. \aleph ar vg^{mss} sy^h 등이 5:7a의 ἐκκαθάρατε와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ν 사이에 ‘οὖν’을 삽입하고 있다. 그리고 5:7b의 τὸ πάσχα를 단순 복수 소유격 ἡμῶν으로 수식하기보다는 신앙 고백문 형식에 일치하게 전치사구 ὑπὲρ ἡμῶν으로 변경한 텍스트는 κ^2 C³ L P ψ 104. 365. 630. 1175^c. 1241. 1505. 1881. 2464 \aleph sy sa bo^{ms} 등이다.

바울서신의 경우 특히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증거하는 파피루스 \aleph^{11} \aleph^{14} $\aleph^{15(1)}$ \aleph^{34} $\aleph^{46(1)}$ \aleph^{61} \aleph^{68} 의 경우 \aleph^{46} 을 제외하곤 모두 7세기 이후의 사본들이기 때문에 1급 상비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NTG²⁸이 본문으로 증거하는 4세기 초 이후의 대문자 사본인 κ^* A B 등이 1급 상비증거이며 고린도전서의 원문을 더 지지한다.

다만 위의 증거를 근거로 이독이 발생한 본문의 역사를 추정한다면 5:7a의 경우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03)의 영향을 받은 9세기의 소문자 사본 33번이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aleph)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소문자 사본 33번이 비잔틴 독법의 전도사로 ‘소문자 사본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⁴⁾

그리고 5:7b의 이독 역시 대문자 사본 κ^2 , C³의 2차, 3차에 걸친 교정일 뿐 아니라, 그 증거 본문이 모두 12세기 이후 대량으로 생산된 소문자 사본임

4) 소문자 사본의 광범위한 본문 전승에 관하여는 Kurt Ala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140-171. 또한 Petr Pokorný, Ulrich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7), 98-99.

을 감안할 때, 이것이 본문의 전승사를 연구할 때 참고할 순 있지만 원문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7a는 본문의 전승 과정에서 현재 본문의 의미 단절과 그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와 원인,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οὖν’을 첨가하여 운문을 가한 것으로⁵⁾ 판단할 수 있다. 5:7b 역시 한편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 형식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ἡμῶν보다는 ὑπὲρ ἡμῶν을 더 선호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⁶⁾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번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대의 번역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에 운문을 가하여 원문에 없는 ‘그러므로’를 넣어 자연스러운 번역을 시도하는 것처럼 고대의 필사자들도 동일한 생각에서 수정을 했고 결국 사본의 이독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GNT⁵와 NTG²⁸의 제안과 일치하게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전서 5:7의 본문이 원문의 고유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독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본문을 확정할 수 있다.

- 7a ἐκκαθάρατε (οὖν)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
ἵνα ἦτε νέον φύραμα, καθὼς ἐστε ἄζυμοι·
7b 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ὑπὲρ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

2.2. 저본의 역사

그럼 이제 우리의 연구를 위해 이 본문이 어떤 번역의 역사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고 정착되었는지 그 저본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기로 하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사의 시작을 돌아보려면 먼저 『예수성경전서』를 펼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콜틀랜드의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1870년 만주에서 시작한 한글 성경 번역은 1884년

5) F. Blass, A.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451,1과 462,1 참조.

6) ὑπὲρ ἡμῶν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R.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1984), 87;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93-98; 206-211을 참조하라. 또한 F. 환, 『신약성서신학 I』, 강면광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25f.; H. 콘첼만, 『신약성서신학I』, 박두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95f.

일본에서 시작된 이수정(李樹廷)의 번역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을 뿐만 아니라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권의 번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 최초의 신약성경 완역본이라는 명성을 얻은 『예수성교전서』의 저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⁷⁾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 저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⁸⁾ 거의 로스와 매킨타이어의 첫 번역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1881년 10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누가복음』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번역된 『고린도전서』(1883년 10월)에 있는 고린도전서 5:7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번역사와 『예수성교전서』의 저본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소위 <로스역>이라고 하는 『예수성교전서』의 저본으로 언급되는 성경들은 로스의 개인적 언급과 연구를 통하여 특정한다. 중국어의 경우는 <대표자역본>, <모리슨역본>, <Bridgman 역본>, <북경관하역본>이, 영어의 경우는 <개정역>(Revised Version),⁹⁾ <흠정역>(King James Version), 그리고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경우 <옥스퍼드판>, <케임브리지판>, <웨스트코트-호르트판> 등이 손꼽힌다.¹⁰⁾ 여기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로스역>은 어떤 곳에서는 RV를, 또 어떤 곳에서는 <흠정역>을 참고하면서 또 어떤 곳에서는 다시 특정할 수 없는 중국어역을 반영하고 게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어 신약성경까지 참고하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이 결론이다.¹¹⁾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로스역>의 ‘저본 찾기’는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로스역>의 저본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저본의 본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신약성경 편집본이 무엇이었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클라크(K.W. Clark)에 따르면 지난 세기 가장 많이 사용된 그리스어 신약

7) 최근의 몇몇 중요한 연구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신학지평』 31 (2018), 93-120; 홍성지, “존 로스(J. Ross)의 성경 번역 과정과 번역된 성경에 나타난 한국어의 특성”,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7); 최성일, “로스역본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92-112;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99-132; 또한 박형신,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 (2017), 85-114; 이환진, “Reflections on the First Translation of Korean Bible: the Ross Version of 1887(Yesu-Seonggyo-Jeonseo)”, 『성경원문연구』 18 (2006), 118-119.

8) 가장 최근의 연구가 결론을 유보한 것을 참조하라.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116.

9) 이후 한글 『개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RV로 표기한다.

10) 다음을 참조하라.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95f.;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113-121.

11)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95-99.

성경의 편집비평판은 <웨스트코트-호르트판>(Westcott-Hort), <수터판>(Souter) 그리고 <네슬판>(Nestle)이라고 한다.¹²⁾ 그런데 여기서 로스가 참조했다고 여겨지는 <옥스포드판>은 바로 <팔머판>(Palmer)이다. 그리고 이 <팔머판>은 Textus Receptus를 수용한 <수터판>의 재판이다.¹³⁾

따라서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참조했다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결국 에라스무스(Erasmus)에서 유래하고 소위 <스테파누스판>으로 유명해진 Textus Receptus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알려진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12/13세기에 대량으로 필사된 비잔틴 사본(Byzantine Text, Majority Text)을 근거로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extus Receptus의 기원이다.¹⁵⁾ 그런데 여기서 <로스역> ‘저본 찾기’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흠정역>의 번역에 대한 문제이다. <흠정역>(1611)은 번역 당시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rinus),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그리고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과 같은 고대의 우수한 사본들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번역 당시 후대의 다수 사본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다 스테파누스(Stephanus)나 베자(Beza)에 의해서 변경된 Textus Receptus의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⁶⁾

따라서 이렇게 생래적으로 열등한 사본이 기저에 있는 <흠정역>의 치명적인 약점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만개한 사본에 대한 지식과 연구의 발전으로 개역의 요구에 직면한다. 게다가 <흠정역>이 출판된 지 16년 만에 영국에 전달된 고대의 우수한 사본들인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rinus), 그리고 4세기의 사본인 시내산 사본(Codex Sinaiticus)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은 캠브리지의 신약학자인 웨스트코트(Westcott)와 호르트(Hort)등과 같은 학자들에게 원문에 근접한 번역의 동기를 부여

12) 클라크(K. W. Clark)가 도드(D. H. Dodd)에게 헌정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W. D. Davies and D. Daube, eds.,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1f.

13) W. D. Davies and D. Daube,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32.

14) Textus Receptus는 근대적 본문비평의 아버지로 불리는 벵엘(J. A. Bengel)의 영향으로 수정본이 출판되고 1904년 <네슬>(5판)의 출판이후 최종적으로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K. Al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1과 29를 참조하라.

15) K. Al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14; 또한 민경식,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기원에 대한 고찰 - 에라스무스 본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3 (2008), 7-26; 장동수, “텍스투스 레캡투스와 신약성서 번역: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3 (2008), 69-102; 신현우, “텍스투스 레캡투스와 본문비평,” 『성경원문연구』 23 (2008), 47-68; 소기천,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다양한 의미와 21세기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우리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27-46을 참조하라.

16) Bruce M. Metzger,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1), 70-80.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들이 <흙정역>의 개역을 주도하는 위원회에 합류했고 이들이 고대의 우수한 사본을 근거로 번역에 착수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¹⁷⁾ 따라서 RV(1881)의 바탕에는 <웨스트코트-호르트판>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저본에 대한 이런 약사(略史)는 다시 『예수성교전서』의 저본 연구의 두 번째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로스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어느 곳에서는 <흙정역>(1611)을, 또 다른 곳에서는 RV(1881)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을 넘어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본문이 <팔머판>(Palmer)이라는 것이다.¹⁸⁾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팔머판>(Palmer)이라는 것은 다시 그 본문이 Textus Receptus로 회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RV를 참조하고 다시 원문 검토를 위해 <팔머판>(Palmer)를 봤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흙정역>으로 비교했다는 말과 같다. 이런 이유로 <로스역>의 ‘저본 찾기’는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언급되는 저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영어 번역 성경과 그 영어 번역 성경이 사용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본문을 예시할 수 있다.

■ Textus Receptus <Stephanus>(1550)

- 7a ἐκκαθάρατε οὖν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ν,
ἵνα ἦτε νέον φύραμα, καθὼς ἐστε ἄζυμοι·
- 7b 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ὑπὲρ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

■ <흙정역>(1611)

- 7a Purge out therefore the olde leauen,
that ye may be a new lumpe, as ye are vnleauened.
- 7b For euen Christ our Passeouer is sacrificed for vs.

■ Westcott-Hort(1881)

- 7a ἐκκαθάρατε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ν, ἵνα ἦτε νέον φύραμα,
καθὼς ἐστε ἄζυμοι·
- 7b 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

17) Bruce M. Metzger,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99-104.

18) 로스가 참조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대체로 <옥스포드판>, 즉 <팔머판>으로 여긴다.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116; 또한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101-116.

■ RV(1881)

- 7a Purge out the old leaven,
that ye may be a new lump, even as ye are unleavened.
7b For our passover also hath been sacrificed, even Christ:

위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Textus Receptus 본문이 12세기 이후 대량으로 생산된 소문자 사본의 영향을 받아 더 오래되고 우수한 사본에는 없는 οὐρανὸν καὶ ὑπὲρ ἡμῶν을 삽입한 것과 그 본문이 그대로 <흙정역>(1611)으로 이어져 번역된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오래되고 우수한 고대의 사본이 반영된 <Westcott-Hort판>(1881)과 그 본문이 번역으로 이어진 『개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3. 고린도전서 5:7의 우리말 번역 성경

우리는 위에서 고린도전서 5:7의 본문 전승이 현저한 두 갈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앞두고 있던 로스와 매킨타이어에게 이 양 갈래의 본문 전승은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 번역의 전통이 우리말 성경번역에는 어떻게 이어졌을까? 이 질문은 한글 번역 성경의 획을 긋는 대표적인 번역본들을¹⁹⁾ 역사적 순서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쉽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예수성교전서』(1887)

- 7a 너희무군누룩을경이떨끄시덩이틀일너라
너희는누룩업슨것갓타니,
7b 우리님은설끄양이논키리쓰토가취기물보미니

■ 공인역 『신약전서』(1906)

- 7a 묵은 누룩을 더러 브리고 새 덩어리가 되여라
너희가 누룩업는 것 갓야 흘터이니,
7b 우리의 유월절 양을 임의 죽여 제스드렛스니

19) 한글 성경의 획을 긋는 번역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하라.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특히 27-45와 169-170; 또한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20-31; 또한 이만열, “한글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6-24; 또한 “한글성경번역사” <https://www.bskorea.or.kr> (2020. 7. 11).

그양은 곳 그리스도시니라

■ 『개역』(1938)

7a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누룩을 내어 버리라
너희는 누룩 업는자인데,

7b 우리의 유월절 양곳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 『개역개정』(1998)

7a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7b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적 비교에서 우리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5:7의 번역에 <흙정역>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예수성교전서』(1887)를 번역할 때 RV(1881)를 참조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며²⁰ 또한 그 바탕에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본문은 설령 <팔머판>(Palmer)을 대조하였다고 할지라도 고대의 우수한 사본이 바탕에 있는 <Westcott-Hort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우리는 『예수성교전서』의 “넘는설”이 공인역 『신약전서』와 『개역』에서 “유월절”로, 또 “취기물보미니”가 공인역 『신약전서』와 『개역』에서 각각 “죽여 제스드렛스니”와 “희생이 되셨나니라”로 번역되면서 『예수성교전서』에서 공인역 『신약전서』, 그리고 『개역』으로 넘어가면서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번역하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예수성교전서』가 오히려 더 구어체를 기반으로 한 번역이었음을 알 수 있고²¹ 이것은 그 안에 서북 방언이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에서 원문의 *καὶ γάρ*가 “... 보미니”(『예수성교전서』, “... 드렛스니”(공인역 『신약전서』)로 번역되어 어느 정도 이유와 원인의 의미를 살리고 있으나, 그 이후의 개정된 번역들이 그것을 생략한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 사이에 보충적 동격을 강조하는 “... 곳”(『개역』), “... 곧”(『개역개정』)만 살려서 번역한 것은 다소 원문에서 떨어진 번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원문에서 떨어진 번역은 본문에 들어 있는 강한 상징과 은유에 의해서 더욱 본문의 가독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20)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116.

21) Ibid., 126.

3.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비평과 저본 비교, 그리고 우리말 번역본의 약사를 통해 우리말 성경의 고린도전서 5:7은 *καὶ γὰρ*의 세심한 번역을 간과한 것 외에 본문의 전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의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문의 전승사와 현대의 번역본들은 지속적으로 율문을 시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 위에서 살펴본 우리말 성경의 번역사는 아쉽게도 우리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 시도하는 율문은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누룩과 유월절 양이라는 메타포를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1.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b)라는 상식적인 말처럼, 누룩(*ζύμη*)은 반죽을 부풀리거나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효모, 발효제이다. 그래서 누룩은 당시 불과 함께 언제나 부엌에 있어야 하는 사물이다. 그런데 바울은 5장 7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ἐκκαθάρατε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라고 명령한다. 바울의 이 명령에서 누룩은 다중적 메타포를 함의하고 있다.

먼저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할 때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πάσχα*)을 연상시킨다. 구약의 율법은 유월절 전에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말끔히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지내야 한다(출 12:15, 19-20 병행; 출 13:3, 7). 그래서 유월절 축제 기간에는 ‘누룩 없는’(τὰ ἄζυμα) 빵을 먹어야 한다. 이때 먹는 빵이 무교병(無酵餅)이며, 이 기간에는 집안에 누룩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유월절 즈음이라면²²⁾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바울이 처한 상황과 심리에 기인한 구체적이며 생생한 메타포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누룩은 신약성경에서 때론 긍정적으로(눅 13:21 병행; 마 13:33), 때론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막 8:15 병행; 마 16:11-12; 고전 5:6; 갈 5:9).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누룩은 그 적은 양에 비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²³⁾ 반면에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누룩의 은밀

22)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60; 또한 H. Windisch, “ζύμη”, G. Kittel, G. Friedrich, hrsg., *ThWNT II*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90), 902-906.

23) 예를 들어, 마 13:33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 전염성, 침투성 등 부정적 영향력이 강조된다.²⁴⁾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인(動因)과²⁵⁾ 누룩의 메타포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5장의 주제인 음행과 관련하여 음행한 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잔류하는 것은 공동체를 오염시킬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룩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의 메타포를 담고 있다. 이것은 이미 누룩의 메타포를 도입하는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경구를 통해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납할 때 공동체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전형적 윤리 형식인 명령법(imperativ)과 직설법(indikativ)을 통해서 강조한다.²⁶⁾ 그는 고린도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새로운 존재(indikativ),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ἵνα ἦτε νέον φύραμα)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ἐκκαθάρατε τὴν παλαιὰν ζύμη)라는 윤리적 명령(imperativ)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여기에서도 직설법의 근거와 기초는 역시 명령법이 된다.²⁷⁾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들은 그 정체성에 걸맞게 교회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외면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2.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7에서 ‘유월절 양’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파스카’(τὸ πάσχα)는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대명사이다. 파스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흐’(פֶּסַח)는, 역시 유사한 발음의 아람어 נְפֻסָּה 또는 נְפֻסָּה의 음역이다.²⁸⁾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파스카는 유월절 축제(눅 22:1; 마 26:2; 요 11:55; 행 12:4), 유월절 식사(막 14:12ff.; 요 18:28), 유월절

24) W. Pokes, “ζύμη”,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2301.

25) 글로에의 집편으로부터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해 들은 바울은 공동체 내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화하여 그 문제에 차례로 응답한다. 고린도전서의 이런 구조와 주제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P. J. 악트마이어, J. B. 그린, M. M. 톰슨,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09-421; 또한 H. Conzelmann, A.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4), 262-267; Petr Pokorný, Ulrich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230-237.

26) 바울윤리에 대한 개요와 그 형식인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U. Schnelle, *Paulus: Leben und Denken* (Berlin: de Gruyter, 2014), 597-610.

27) Ibid.; H. Merklei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5,1-11,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00), 39.

28) W. Bauer and K. Aland, “πάσχα”,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1256.

양(벧전 1:19; 요 1:29)²⁹⁾ 그리고 후에 주의 만찬(눅 22:15-16) 등에 사용되는 아주 광범위한 쓰임새를 가진 용어이다.³⁰⁾ 따라서 파스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문맥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τὸ πάσχα가 ἡμῶν(우리들의)으로 수식되고, ἐτύθη(죽임을 당했다, 희생되었다)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바울이 이 문장에서 파스카가, 즉 우리의 파스카가 Χριστός라고 분명히 못 박음으로 이 파스카가 다른 어떤 의미도 아닌 유월절 양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는 메타포가 적합한 것인지 또는 이 메타포가 그가 의도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시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와 독자의 몫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³¹⁾ (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라는 고린도전서 5:7의 이 말은 대속을 위한 희생적 죽음에 대한 은유에 가깝지, 지금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정결과 거룩의 메타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대인의 유월절 관습을 상기시키며 집안에서 누룩을 멀리하여 깨끗해지라는 주제와 유월절 양이 일차적으로 내포하는 구원이라는 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³²⁾ 비록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효과적 소품으로 유월절 양 만한 것이 없지만 공동체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한 누룩과 구원,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메타포는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3.3. 누룩과 유월절 양 사이

그렇다면 누룩과 유월절 양이라는 두 메타포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일까? 언뜻 보기에 이 둘 사이에는 단지 καὶ γάρ만 눈에 띈다. 그러나 이 καὶ γάρ가 우리의 궁금증을 다 대변해줄 수는 없다. 후대의 대다수 소문자 사본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현대의 일부 번역본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여기에 ὑπὲρ ἡμῶν을 덧붙여야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의

29) 명시적으로 πάσχα가 유월절 양의 의미로 사용된 곳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고전 5:7뿐이다.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양의 의미로 추론되는 ὁ ἀμνός가 사용되었다.

30) J. Jeremias, “πάσχα”, G. Kittel, G. Friedirich, hrsg., *ThWNT* V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90), 906f.

31) 저자 사역.

32)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60; G. B. Gray,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1925), 397; 또한 제임스 D. G. 던, 『바울신학』,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319.

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 그럴까? 그리고 왜 ὑπὲρ ἡμῶν을 덧붙여야 누룩과 유월절 양의 메타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예수의 죽음을 희생적 대속의 죽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전 5:3; 엡 5:2; 히 7:27, 9:26과 28).³³⁾ 우리에게 예수의 대속적 죽음은 유월절 양의 메타포보다는 희생양의 메타포에 더 익숙하다.³⁴⁾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7은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유월절 양으로 은유한 메타포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양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곳은 신약성서에서 오직 고린도전서 5:7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선교 초기에 그리스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바울에게 전달된 ‘우리를 위한’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관한³⁵⁾ 메타포가 희생양에 그 무게를 두는지, 혹은 유월절 양에 더 무게를 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마 이 둘이 두루뭉술하게 혼합된 개념이 문맥에 따라 때론 유월절 양으로, 때론 희생양으로 강조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³⁶⁾

그런데 구약의 전통 안에 있는 유월절 양의 메타포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율법의 엄수와 해이 사이를 오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 유월절 양과 희생양의 기능적 통합을 보이기 때문이다.³⁷⁾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양의 표상이 점차 희생양과 결합된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도 유대의 제의 전통 모범에 따라 대속적 희생, 계약의 희생, 유월절 희생을 포괄하는 쪽으로 강화되었으리라 추측을 할 수 있다.³⁸⁾

이런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론적 발전 과정을 단지 누룩과 유월절 양 사이

33)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피와 결합된 주의 만찬의 말들을 제외하더라도 예수의 죽음과 대속적 죽음이 암묵적으로 표현된 롬 3:25; 4:25; 5:9; 골 1:20; 엡 1:7; 요1 1:7; 행 20:28 등 유사 병행구를 참조하라.

34) 제임스 D. G. 던, 『바울신학』, 320.

35) 복음의 전승을 받고 전하는 전승의 연결 고리에 관하여는 고전 15:1-8을 참조하라. 또한 R.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49f., 87-89; H.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119; H. Conzelmann, 『신약성서신학I』, 91f; 그리고 G. 프리드리히, 『예수의 죽음』, 60.

36) 신약성경 전반은 예수의 죽음을 희생양과의 유비 속에서 전하지만(위의 각주 32 참조),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주의 만찬전승은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 양과의 강한 유비를 보인다. 특히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인 유대력 니산월 14일, 즉 유월절 전날로 전하는 요한복음을 참조하라. 요 18:28; 19:14.

37) 겔 16-25.

38) H.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20; 고든 D. 피, 『고린도전서』, NICNT, 최병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96f.

에 있는 *καὶ γάρ*로 다 유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³⁹⁾ 또 *ὑπὲρ ἡμῶν*으로 부연한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음행이 발생한 고린도교회에서도⁴⁰⁾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바울이 소위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이미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었는지,⁴¹⁾ 지금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는 순간에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처음 언급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누룩과 유월절 양이라는 메타포가 한 쌍으로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그가 대조적으로 사용한 “묵은(*παλαιός*) 누룩”과 “새(*νέος*) 반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의 대조 속에 있는 “유월절 양”(*τὸ πάσχα*)이라면 우리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유월절 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 편지를 쓰는 시기가 유월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관계된 진술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지키는 유월절 관습이 상기하는 것처럼,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범죄와 불의에서 해방된 개인과 공동체는 이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하는 윤리적 요청 앞에서 있다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고린도전서 5:7은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론이 농축된 메타포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이 구절을 5:7a와 5:7b로 나눌 때 이 둘을 연결하는 *καὶ γάρ*는 ‘누룩’과 “유월절 양”이라는 두 메타포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접속사가 『개역개정』을 비롯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종종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최초의 우리말 성경완역본인 『예수성교전서』에는 들어 있지만 『예수성교전서』와 다른 노선을 걸었던 우리말 성경의 개역과 개정의 역사는⁴²⁾ 이 *καὶ γάρ*를 등한히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καὶ γάρ*는 후대의 사본들이, 그리고 몇몇 현대의 번역본들이 본문에 *ἡμῶν*이 있음에도 동어 반복의 *ὑπὲρ ἡμῶν*를 첨가하며 이해하려고

39) H.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19-120; 고든 D. 피, 『고린도전서』, 296f.

40) 고전 5:1.

41) 행 18:1-18.

42) <로스역>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형신,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85-114.

할 정도로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이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양’으로 은유한 구절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대의 첨가는 한편으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는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는 부연과 해석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부연과 해석이 신앙 고백 형식문(credo)으로 굳어진 결과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의도를 바르게 읽으려는 필사자와 독자의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7으로 형성된 바울과 고린도교회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미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유월절 양”이란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것이 아무런 설명 없이 “누룩”과 “유월절” 사이에 *καὶ γάρ*만이 홀로 놓여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유와 원인의 *καὶ γάρ*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번역으로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καὶ γὰρ τὸ πάσχα ἡμῶν ἐτύθη Χριστός).

<주제어>(Keywords)

고린도전서 5:7, *καὶ γάρ*, 누룩, 유월절 양(πάσχα), 희생양.

1 Corinthians 5:7, *καὶ γάρ*, leaven, paschal lamb, sacrificial lamb.

(투고 일자: 2020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예수성경전서』, J. 로스 역, 경성: 문광서원, 1887.
- 『신약전서』, 경성: 경성성서공회(영국성서공회 경성지부), 1906.
- 『성경개역』, 경성: 조선경성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던, 제임스 D. G.,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식,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기원에 대한 고찰 – 에라스무스 본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3 (2008), 7-26.
- 박형신,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 (2017), 85-114.
- 소기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다양한 의미와 21세기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우리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27-46.
- 신현우, “텍스트스 레캡투스와 본문비평”, 「성경원문연구」 23 (2008), 47-68.
- 악트마이어, P. J., 그린, J. B., 톰슨, M. M., 『새로운 신약성서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이만열,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이만열, “한글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6-24.
- 이환진, “Reflections on the First Translation of Korean Bible: the Ross Version of 1887(Yesu-Seonggyo-Jeonseo)”, 「성경원문연구」 18 (2006), 118-119.
- 장동수, “텍스트스 레캡투스와 신약성서 번역: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3 (2008), 69-102.
-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신학지평」 31 (2018), 93-120.
- 최성일, “로스역본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92-112.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 (2010), 99-132.
- 프리드리히, G., 『예수의 죽음』,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피, 고든 D., 『고린도전서』, NICNT, 최병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콘첼만, C., 『신약성서신학I』, 박두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한, F., 『신약성서신학 I』, 강면광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홍성지, “존 로스(J. Ross)의 성경 번역 과정과 번역된 성경에 나타난 한국어의 특성”,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7.
- “한글성경번역사”, <https://www.bskorea.or.kr>(2020. 7. 11).
- Aland, Kurt and Aland, Barbara,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Bauer, W., hrsg., “πάσχα”,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1256.
- Bultmann, 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Tübingen: Mohr, 1984.
- Blass, F., Debrunner, A.,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Conzelmann, H. und Lindemann, A.,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Conzelmann, H.,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 Davies, W. D. and Daube, D., eds.,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Gray, G. B.,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1925.
- Jeremias, J., “πάσχα”, G. Kittel, G. Friedirich, hrsg., *ThWNT* V,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90, 896-904.
- Merklein, H.,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5,1-11,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00.
- Metzger, Bruce M.,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1.
- Pokes, W., “ζύμη”,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eds., *ED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2301.
- Pokorný, Petr und Heckel, Ulrich,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Schnelle, U., *Paulus: Leben und Denken*, Berlin: de Gruyter, 2014.
- Schrage, W.,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VII/1, Zürich: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 Windisch, H., “ζύμη”, G. Kittel, G. Friedirich, hrsg., *ThWNT* II,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90, 902-906.
- “Textus Receptus”, <http://textusreceptusbibles.com/Stephanus> (2020. 7. 11).

<Abstract>

**Metaphor of “Leaven and Paschal Lamb”:
A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5:7**

Young-in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meaning of metaphors *leaven* and *Paschal Lamb* in 1 Corinthians 5:7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Corinthians 5:7 is an important verse that contains metaphors of the Christology from early Christianity.

When the verse is divided into 5:7a and 5:7b, both parts are connected through *καὶ γάρ* which entails the metaphors of *leaven* and *Paschal Lamb* respectively. The conjunction *καὶ γάρ* has the function to exhibit the latter as the cause of the first metaphor. However, this important conjunction is often omitted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including the 『개역개정』 (New Korean Revised Version). Of course, it is included in the first complete version of the Korean Bible, 『예수성경전서』(Corean New Testament) in history.

However, this *καὶ γάρ* is a phrase that is not easy to interpret so the majority of later manuscripts and some modern translations try to understand it by adding *ὕπὲρ ἡμῶν*. It is also the only passage in the New Testament that explicitly refers to the death of Jesus as the *Paschal Lamb*. The addition by later generations is therefore seen as a paraphrase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understanding that Jesus Christ is the *Sacrificial Lamb* and correctly the *Paschal Lamb*.

As the Jewish community already shows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the Paschal Lamb and the Sacrificial Lamb by the time of prophet Ezekiel, it can be speculated that in early Christianity, the interpretation of Jesus' death was strengthened to include the concept of Sacrificial Lamb and Paschal Lamb. It is therefore consequently obvious to Paul that Jesus Christ, who was the *Sacrificial Lamb* is also the *Paschal Lamb*. This is why Paul only wrote *καὶ γάρ* between *Leaven* and *Paschal Lamb* without any additional explanation.